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며 한땀 한땀”

한복 짓는 스물 여섯 청년 박현철 디자이너

“엄마 가게 잠시 지키고 있는 아들 줌으로 생각하시고, 엄마 언제 오시냐고 묻는 이들도 있어요. (웃음)”

그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웃을 파는 게 아니라 ‘만드는 사람’, 그것도 ‘한복’을 짓는 이라면 어느 정도 상상되는 게 있는데, 그를 만나면 내가 제대로 찾아왔나 하는 생각부터 들지도 모르겠다. 작은 체구에 옛날 얼굴의 그는 올해 스물 여섯 청년이다.

광주시 동구 법원 인근에서 ‘눈썹달 주단’을 운영중인 한복 디자이너 박현철씨가 한복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지는 올해로 5년차. 수십년 동안 한복을 지어온 이들에 비하면 아직은 새내기지만 그는 “마음을 담은 옷을 바느질하며 사람들의 인연에 감사해” 하는 ‘한복 짓는 청년’으로 조금씩 이름이 알려지고 있다.

학창시절 좋아했던 가수 이소라의 음반 제복에서 따온, 8평 남짓 작은 규모의 작업실 ‘눈썹달’ 소원도엔 문헌 등을 참고해 재현한 ‘조선종기 삼화장 저고리’가 걸려 있었다. 그의 작품은 현재 광주 롯데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깊어질수록 꽃이 피는’ 전(28일까지)에서 만날 수 있다. 인간의 생애주기에 맞춰 배넛저고리, 원삼, 관복, 삼화장 저고리 등을 전시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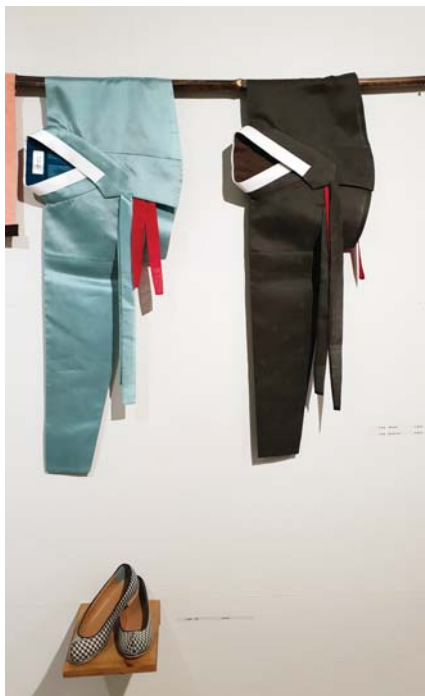
그리기를 좋아했던 그는 다섯살 터울 여동생 인형 옷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바쁜 부모를 대신해 동생 머리를 맡아주고 예쁜 옷입혀 유치원에 보내곤 했다. 바느질을 시작한 건 중학교 때 부터. 쿼트를 배우고 연극부 의상이나 코스프레하는 친구들 옷을 만들었다. ‘한복을 짓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건 중학생이 된 어느날이었다. 자신을 예뻐해주셨던, 늘 옥색 한복을 입던 할머니의 인자한 모습을 떠올리며 “내가 옷만드는 걸 좋아하니 언젠가는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옷 한벌 지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게 시작이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그는 쿼트 선생님 강의를 듣고, 책 등을 통해 독학으로 한복 만드는 법을 배웠다. 2013년 호남대 의상학과에 입학한 그는 원래 옷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서양 의복 공부도 재밌게 했다. 물론 한복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재학 중인 2015년 충장로에 가게를 열고 한복 만들기 클래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마음을 다해 옷을 만든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고객들에게 편지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가 지금까지 만든 옷은 열쭉 300여벌. 예복, 돌복, 수의 등 다채롭다. ‘옷’으로 맺어진 인연들은 그에게 감동을 줘 울컥할 때가 많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가 가야금을 배우는데, 연주회 때 입혀드리고 싶어 한복을 맞추려 온 딸의 사연이나 2년 전 지어 준 수의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예쁘게 입혀 잘 보내드렸다’는 소식을 전할 땐 뭉클해지기도 했다. 결혼예복을 맞춘 이가 아이 돌복을 맞추러 올 때는 뿌듯하다.

“3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한복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 편지를 해 본 게 처음이라고 기뻐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죠. ‘옷’이 나만 생각해서 만든 ‘옷’이 이 생애 몇 차례나 될까 생각해 보면,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소중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죠, 한땀 한



광주 롯데갤러리에서 전시중인 작품.

여동생 인형옷 만들던 중학생 할머니 옷 해드리고 싶어 독학 대학 재학 중 충장로에 개업 ‘편견’ 닫고 인정 받으니 뿌듯 한복 입고 풍속화 재현하고자

‘깊어질수록 꽃이 피는’ 전 28일까지 광주 롯데갤러리



올해 스물 여섯인 박현철 한복디자이너는 자신의 옷을 입는 이들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옷을 짓는다고 말한다.

땀 바느질을 하며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며 마음을 담아 작업하려고 해요.”

그는 요즘 유행하는 변형된 생활 한복보다는 정통 한복에 관심이 많다.

“제가 만드는 한복은 고증을 바탕으로 해요. 저고리 선 등은 유물 복식 등을 보면서 연구하지요. 전통 안에서도 할 게 많으니 굳이 생활한복을 지을 필요는 없죠.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많구요. 물론 저 역시 좀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다양한 패브릭 소재를 활용하기는 합니다. 제 한복은 또 화려한 색깔 대신, 은은하고 톤 다운 된 색깔을 많이 써요. 고즈넉한 색깔이랄까요. 할머니 색깔이라고도 하겠네요 (웃음). 오래된 것에서 영감을 얻는 편입니다.”

벽에 걸린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추분’이라는 타이틀로 2017년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열렸던 행사는 가야금-해금 연주자, 탕파 작가 등이 박씨가 옷을 그들을 위해 제작한 한복을 입고 자신의 작업을 일상에 풀어낸 기획이었다. 앞으로는 옛 문헌에 나온 대로 다 갖춰서 ‘제대로’ 된 한복을 입고 한옥 등에서 풍속화를 재현하는 행사를 해보고 싶다. 또 이불-배개 등 까지 모두 갖춘 수의 일상을 제작할 생각이다.

고객들은 SNS를 통해 그의 작품을 접했거나, 인연이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줬다. 작업 공간에서 눈에 띄는 건 서양화가 박성만 작가의 작품과 박 작가 부부의 결혼 사진이었다. 한국무용가인 아내가 박씨의 클래스에 참여, 웨딩포토 찍을 때 입을 한복을 직접 제작했고 박 작가는 박씨가 제작한 옷을 입고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은 매년 결혼기념일이 되면 모여서 사진을 찍는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한복을 제작한 차이킴 디자이너의 매니저 역시 SNS를 통해 그에게 한복을 주문했고, 지금 박씨가 즐겨 입는 한복은 차이킴의 의상이다.

“한땀 나이 때문에 고생했죠. 어머니 고객들은 쓴 가격에 만들어달라고 하고 조금은 무시하며 엉뚱한 요구들을 해 야속한 마음에 울기도 했죠. 지금은 제 작업을 보여주면, 납득한 고객들이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는 건 없어요.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마음이 안 맞거나 결이 다르면 정중히 거절해요. 제가 행복한 건, 고객들이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일 하는 지 알 아주려는 ‘노력’을 해주신다는 점이에요. 믿어주고 응원해 주시는 거죠. 당신 같은 너무 좋은 사람을 위해 옷을 만듭니다. 당신이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옷을 만들려고 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롯데갤러리에 전시를 보러갔다. 누군가의 행복을 기원하며 한땀 한땀 바느질하는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옷들은 왠지 더 의미있어 보였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

박유신·김현정의 ‘러시안 첼로’

26일 광주 금호아트홀

‘야나체코 콩쿠르’ (2018)에서 준우승한 첼리스트 박유신과 ‘일본 센다이 콩쿠르’ (2016)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김현정이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듀오 리사이틀을 연다.

‘러시안 첼로’라는 이름을 내건 이번 공연은 프로코피예프, 미야스콥스키, 라흐마니노프, 쇼스타코비치 등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의 음악으로 채워진다.

먼저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다장조 작품119’로 문을 열고 그의 스승인 니콜라이 미야스콥스키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번 작품81’으로 호흡을 맞춘다.

후반부에서는 라흐마니노프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두 개의 소품 작품2’를 연주하고 마지막으로 쇼스타코비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라단조 작품40’으로 무대를 마무리한다. 러시아 특유의 서정성이 담긴 네 곡을 통해 이들은 화려한 기교와 풍부한 선율을 들려줄 예정이다.

첼리스트 박유신(29)은 ‘야나체코 콩쿠르’ 입상에 앞서 같은 해 ‘안톤 루빈슈타인 콩쿠르’에서 2위를 수상해 유럽 음악계에서 주목을 받았다. 드레스덴 슈타



박유신

김현정

츠카펠레 아카데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유신은 남서독 필하모니, 드레스덴 국립음대 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 등과 협연 무대를 가졌다. 금호 영챔버 아티스트로 선정됐고 현재 드레스덴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중에 있다.

김현정(28)은 지난 2010년 파데레프스키 피아노 콩쿠르에서 준우승하며 일찍이 클래식계의 관심을 모았다. 금호 영챔버, 금호 영아티스트 콘서트, 야마하 라이징스타 시리즈 등을 통해 여러 독주회를 가졌고 지난해 일본 투어 리사이틀을 마쳤다. 예원학교를 수석 입학·졸업한 김현정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거쳐 미국 피바디 음악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아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피바디 음악원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밟고 있다. 전석 3만원(학생 2만원). 문의 062-360-8437. /백희준 기자 bhj@

광주문화재단 ‘청년문화일자리 지원사업’ 참여단체 모집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2019년도 지역주도형 청년문화일자리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10개 문화예술단체를 선정 후 별도 채용공고를 통해 청년인력을 선발, 참여단체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10개 참여단체는 각각 10개월 동안(최대 2년 지원 예정) 총 18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이외에 직무교

육, 네트워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및 신청서 양식 등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 혹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공공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1일부터 27일까지 문화재단 정책연구 교류팀(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70-7432. /박성현 기자 skypark@

광주문화재단·전남문화관광재단 ‘무지개다리 사업’ 참여

광주문화재단과 전남문화관광재단이 ‘무지개다리 사업’ 참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이주민·탈북민·장애인 등 우리 사회 다양한 문화 주체들과 지역문화기관들이 참여하는 ‘무지개다리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2012년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무지개다리 사업’은 지난해 27개 지역 250여 개 프로그램으로 확대됐으며 올해는 심사를 통해 광주문화재단

과 전남문화관광재단 등 모두 26개 지역문화기관이 선정됐다. 이들 26개 지역문화기관과 단체에는 상호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는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소수문화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참여 지역 간 워크숍을 개최하고, 컨설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문화다양성아카이브(www.cda.or.kr)의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저전압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특허공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6년무상A/S/정기점검

IPALG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한국 미국 독일 캐나다 덴마크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자연을 소리...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